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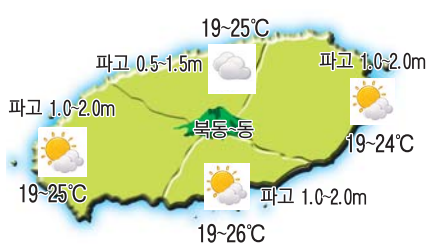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5일 월요일 음 5월 1일 (8월)

백록담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 낮 최고기온은 24-26℃로 예상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for the morning and afternoon.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20/27℃, 모레 흐림 20/21℃

월드뉴스

이란, 종전 MOU 최종 결정 검토작업 진행

“정치·법률·기술적 검토중”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종전 MOU 체결을 앞두고 테헤란 광장에서 협상 체결을 지지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종전 협상팀과 가까운 한 내부자는 파르스 통신에 “이란은 제안된 양해각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양해각서 문구에 대한 정치적·법적·기술적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상단은 협상 타결을 위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다.

미국과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은 3개월 이상 이어진 전쟁을 끝낼 ‘기본 협정’이 이날 중 공식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내 강경파 시위대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서명 시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종 합의 여부와 발표 시점은 이란 지도부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실무 전문가와 의사결정권자들은 제안서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이번 사안의 정치·법률·기술적 파급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재국인 카타르 협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문미숙 경제부동산부국장

‘제주에 2박 이상 머무는 개별관광객에게 2만~5만원의 지역화폐 지원’, ‘안전 인증 농어촌민박에서 한달 살기를 하는 도의 청년에게 최대 60만원의 숙박비 지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내국인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근 내놓은 지원책들이다. 예산이 한정된 이벤트는 금세 마감될 정도로 반응도 뜨겁다.

제주 관광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희미해졌다고는 하지만, 여

제주 노선 항공 좌석 축소, 정부가 답해야

틈유가철 직전인 6월은 비수기로 꼽힌다. 게다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치솟고, 대형 항공사 결합 이후 국내선 공급 좌석 감소라는 악재까지 겹쳐 1분기까지만 해도 뚜렷했던 회복세가 확 꺾였다.

6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4100~3만5200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그나마 7월에는 2만4200원으로 내려 다행이다.

반면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 공급량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항공사들이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늘리기 쉽지 않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제주~

김포 노선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13개를 대형 항공사보다 좌석 수가 적은 기종을 운영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에 재배분했고, 이는 지난 3월 29일 하계 운항 스케줄부터 적용됐다. 슬롯 재배분이 대형 항공사의 결합에 따른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지난 5월 제주 국내선 공급량은 245만4702석으로 1년 전보다 3.3%(8만2688석) 감소했다. 4월(-6.8%)

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3월만 해도 10.5% 증가했던 공급 좌석이 슬롯 재배분 후 하루 1000석가량 줄어들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은 좌석난은 물론 급등한 항공권 가격 부담을 호소했고, 늘어난 비용 부담은 결국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다.

제주 관광객 감소 여파는 숙박업·음식점·렌터카·전세서비스업 등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을 초래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여름 성수기까지 이어진다면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슬롯 재배분 이후 제주 노선 공급성이 얼마나 줄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좌석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슬롯 재검토나 주말·성수기 대형 항공기 투입 확대 방안 등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열린마당

지하수 고갈? 삼다수 취수원이 안전한 이유



고현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물연구소장

제주삼다수는 1998년 첫 출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는샘물로 성장해 왔으며 제주 지하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공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삼다수 판매 성과는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 지난해까지 누적 순이익의 44.2%인 4108억원이 도민 공헌사업에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부에서는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주삼다수 생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주삼다수로 인한 지하수 고갈 우려는 안심해도 좋다. 최근 제기되는 지하수위 하강 문제는 주로 강수량이

적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주 전역의 지하수가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동서남북으로 유역을 세분화해 함양량의 40.7%만을 지속이용 가능량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삼다수 취수원은 동부유역인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대표적인 다우지역으로, 연간 취수허가량은 165만 톤에 불과하다. 이는 동부유역 지속이용 가능량의 0.81% 수준이다.

상시관리 체계도 운영되고 있다. 취수원과 중·하류 지역에 수자원 관측망을 구축해 지하수 수위·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해 향후 지하수위까지 예측하고 있다. 20년 이상 축적된 관측자료로 제주삼다수 취수가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고 2년마다 지하수영향평가를 실시해 검증을 받고 있다.

제주삼다수의 경쟁력은 깨끗한 물뿐 아니라 지하수를 관리하고 미래까지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다.

내일을 바꾸는 힘, 평생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



이경수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교학처장

오늘날 우리는 기대수명이 늘어난 ‘초장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체감하는 고용 환경의 수명은 오히려 짧아졌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청년들은 이직을 고민하며 중장년층은 조기 퇴직이라는 현실과 마주한다. 고용 위기는 관광·서비스업과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제주에서 크게 다가온다.

최근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요구와 맞물려 청년들의 이직 수요와 중장년층의 재취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는 부족하다. 이제는 변한 환경 속에서 어떤 기회가 생겼는지

직시하고 이에 맞는 취업 목표와 경력개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디지털 전환, 전기·소방·설비 등 전문 시설 관리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맞춰 평생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를 비롯한 공공 직업교육기관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또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과 기업의 일자리 매칭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자치도와 교육기관, 지역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훈련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평생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은 개인 취업을 돕는 것을 넘어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다. 변화의 파도 앞에서 제주가 먼저 배움의 기회를 넓혀 미래의 문을 열어가기기를 기대한다.

Advertisement for Boraflower (꽃보라) featuring various plants and a storefront image.

Advertisement for EKO Waterproofing (에코방수) showing a worker applying waterproofing material to a wall.